



관내 동향

□ 사천시, 4개 기관과 UAM 산업 육성 협약 체결

- 사천시가 경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을 통해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는 행정 지원과 지역 육성제도를 마련하고, UAM 사업화에 필요한 공동 인프라 조성 등에 협력한다.
- 경상국립대는 UAM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체계 구축, 산학연 공동과제 수행에, KAI는 UAM 핵심부품 개발과 양산체계 구축, UAM 기체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 앞으로 협약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UAM 산업 육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기관별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 사천시, '2022 항공우주포럼 및 수출상담회' 개최

- 사천시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KB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2022 항공우주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수출상담회와 포럼 등의 행사로 구성되었으며 국내외 80여개 항공우주 관련기업과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했다.
- 특히 보잉, 에어버스, GE Aviation 등 세계적인 국외 기업 9개사와 KAI, 한화시스템 등 국내기업 2개사의 구매담당자가 참가하여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 또한 행사 2일차에는 관내 항공기 정밀구조물 제작업체 아스트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간 여객기 개조사업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 KAI,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개발 및 해양경찰청 중형헬기 계약 체결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사청과 4,300여억원 규모의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사업 계약을, 해양경찰청과 중형헬기 1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사업은 상륙기동헬기(마린온)에 탑승한 해병대원을 엄호하고 지상 전투부대의 항공 화력지원을 위해 46개월 동안 시제기 3대를 제작한다.
- 이번 사업은 운용능력이 입증된 국산 헬기 마린온을 기반으로 개발하여 호환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및 항공 작전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 해양경찰청이 도입 예정인 '수리온' 기종은 노후된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1월경 현장 배치 예정이다.
- 한편 KAI는 현존 헬기보다 2배 빠른 속력과 강화된 화물 수송능력을 가진 고기동 헬기 개발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KAI, 동남아 최대 방산전시회 '인도디펜스 2022' 참가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동남아시아 최대 방위산업전시회인 '인도디펜스 2022'에 참가하여 인도네시아와 주변국 군 고위관계자를 만나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 인도네시아는 세계 15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2001년부터 KAI로부터 T-50i, KT-1B 등 40여대의 항공기를 수입했으며 KF-21 개발사업 참여국이기도 하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46개월만에 KF-21 미납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으며 내년 국방예산에도 반영하여 사업 지속 이행 방침을 밝혔다.
- 또한 인도네시아 공군에서 40여대에 달하는 호크 109/209 훈련기 겸 경공격기 대체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KAI의 FA-50이 유력 후보 기종으로 꼽히고 있다.
- 한편 인도디펜스에는 40개국 860여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KAI는 말레이시아가 눈여겨보고 있는 FA-50을 비롯해 수리온, 소형무장헬기(LAH) 등을 전시하고 세일즈에 나섰다.

□ **KF-21, 美에비에이션 위크 방위산업 부문 수상**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세계적인 항공 우주 전문매체 에비에이션 위크 연례 시상식에서 방위산업 부문을 수상했다.
- KF-21은 ‘최신형 4.5세대 전투기를 세계시장에 선보인 기념비적인 비행’으로 평가받으며 전투기로는 유일하게 방위산업 부문에서 수상했다.
- 에비에이션 위크는 1916년 미국에서 창간된 항공우주 전문지로 에비에이션 위크 편집장들이 상업항공, 우주, 방위산업, 비즈니스항공 4개 부문에서 특별한 성과를 거둔 항공기, 회사, 기관, 개인 등을 선정한다.
- 미국 워싱턴 D.C 국립 건축 박물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KF-X 개발 책임자인 차재병 상무와 이일우 기술고문, 미주법인장인 김경준 실장이 참석했다.

□ **켄코아 · ASTG, 엠브라에르와 수송기 부품 공급 MOU 체결**

- 세계 3위의 민간 항공기 제조사인 브라질 엠브라에르가 에이에스티지 (ASTG),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및 창원 소재 이엠코리아와 C-390 군용 수송기 부품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엠브라에르는 방사청이 2024~2025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국내 업체 참여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 이번 협약으로 엠브라에르는 국내 업체 참여 조건을 충족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ASTG는 아스트 자회사로 항공기 엔진 부품, 좌석 등을 생산하며,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특수자재 및 구조물 제조 등을 맡고 있으며 이엠코리아는 랜딩기어와 도어파츠, 유압저장조 등을 만든다.

□ 하이즈복합재산업, 항공기정비업 사업 추가

- 하이즈항공의 자회사 하이즈복합재산업(HCI)이 기존의 복합재 부품 제작에 항공기정비업을 추가해 사업을 확장했다.
- HCI는 항공·우주·자동차 등의 복합재 기체 및 구조물 제작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작년 7월 하이즈항공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 이후 항공기정비조직인증(AMO)을 획득하여 HCI에서 수행하는 복합재 부품 수리뿐만 아니라 하이즈항공에서 수행하는 부품 조립까지 확대하고, 해외 업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MRO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항공기정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동향

□ 경남도·KAI·협력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 체결

- 경남도, KAI, 30개 협력사가 경남항공분야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KAI 강구영 사장, 30개 협력사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 협약 내용은 협력사 금융부담 해소, 성장 활력 촉진, 고용안정을 통한 협력사 신규인력 유입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과 생산 효율성 강화 등이다.
- 이에 '상생자금 이차지원'과 '경영위기 긴급자금'을 3년 연장하고, 청년 채용 지원책으로 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와 내용을 확대할 뿐 아니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상생협력기금'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 산업부·과기부 장관 만나 현안사업 건의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0월 26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 이날 산업부 장관에게는 가칭 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설립,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착륙 지원사업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 또 과기부 장관에게는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조속 설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조속 시행, 인공지능 기반 자율 제조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요청했다.
- 특히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큰 기대를 전하며 특별법 제정과 로드맵 연내 발표 등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 이에 과기부 장관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연내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2022 UAM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 고성군이 공동주최하는 '2022 UAM(K-PAV) 국제 컨퍼런스'가 10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개최됐다.
- 본 행사는 미래형 교통서비스인 UAM(도심항공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지난 22일 개최된 '국제 PAV 기술 경연대회'와 연계해 개최했다.
- 기조연설은 항공안전기술원 이대성 원장과 브라질 항공기 제작기업 엠브라에르의 자회사인 이브 에어 모빌리티의 어거스틴 타이가 맡았다.
- 이어 UAM 기체 개발 세션과 인프라 조성 세션으로 나뉘어 KAI, 한화시스템, SK텔레콤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 특히 행사에는 'PAV(개인항공운송수단) 기술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기체와 KAI, 한화시스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체 개발 기체가 전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 경남TP-방진회, 경남 방위산업 육성 협약 체결

-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가 경남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경남지역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 지원, 경남 방위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직·간접 연계 지원, 방위산업 관련 자료 공유, 신규 방위산업 육성사업 공동기획 등에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 방진회 나상웅 상근부회장은 “경남 방산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경남TP의 방위산업 육성지원 의지를 확인했다”며 “한국 방위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TP 노충식 원장은 “경남은 방산 관련 체계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이 밀집해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요충지”라며 “경남TP의 방산 지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남이 한국 방위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동향

□ 과기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연내 출범을 위한 예산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연내 출범을 위한 추진단 운영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를 위한 대통령 훈령이 만들어졌으며 과기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25억 9천만원을 요청했다.
- 현재 관계부처 의견조회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대통령이 발령하는 즉시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우주항공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마련, 이관받을 업무에 대한 부처 협의 및 신규 추진 필요 업무 발굴, 우주항공청 설치와 직원 선발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기부 공무원인 단장 1인과 관계기관 파견직인 단원으로 구성된다.

□ 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로 우주 동맹 강화방안 협의

- 한미 외교당국이 11월 2일 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열어 ‘우주 협력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 ‘한미 우주정책대화’는 우주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와 관련 규범 마련 등 양·다자적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했다.
- 외교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며 우주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 규범 형성 마련 및 우주상황인식(SSA) 분야에 관한 한미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우주 탐사 공동연구 촉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해외 동향

□ 중국, 자체 제작 민간항공기 330대 주문 확보

- 중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중국상용항공기(COMAC·코맥)가 첫 국산 중형 여객기 C919와 소형 여객기 ARJ21의 주문 건수가 330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코맥은 11월 8일 개막한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어쇼 차이나)에서 중국개발은행과 중국공산은행 등 7개 리스회사와 C919 300대, ARJ21 30대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C919는 이번 거래 직전까지 28곳의 고객사로부터 815건의 주문이 있었고 동방항공에서 올 12월 첫 인도를 받게 된다.
- 한편 중국은 서방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항공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C919는 2010년 개발을 시작해 올해 9월 최종 인증을 받았다.

□ 스페이스X, 3년 만에 현존 최강 로켓 팰컨헤비 발사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11월 1일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형 로켓 ‘팰컨 헤비’를 발사했다.
- 팰컨 헤비는 재활용 로켓으로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 ‘팰컨9’ 1단계 추진체 3개를 묶은 형태다.
- 최대 63톤에 이르는 탑재물을 싣고 지구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어 현존하는 로켓 중 성능이 가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번에 발사된 팰컨 헤비는 미국 우주군의 비밀 임무(프로젝트명 USSF-44)를 수행하기 위해 비밀 위성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때문에 로켓 발사 장면만 보여주고 로켓이 위성을 분리하는 장면은 중계하지 않고 ‘우주군이 우주에서 물체 추적과 관련한 활동에 팰컨 헤비가 연관돼 있다’고 간략히 소개하기도 했다.

작성일	2022. 11. 9.(수)	보고일	2022. 11. 10.(목)
부서명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담당자	천민재(055-831-3472)